

2026

대한민국-유럽연합

무역 및 투자관계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1층 04637

TEL (82-2) 3704-1700

FAX (82-2) 735-1211

www.eeas.europa.eu/delegations/south-korea_en



2026

대한민국-유럽연합

무역 및 투자관계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2026 대한민국-유럽연합 무역 및 투자관계

CONTENTS

- 03 인사말
- 04 한-EU 통상 관계 개관
- 07 한-EU 상품 무역
- 13 한-EU 서비스 무역
- 17 한-EU 외국인직접투자



인사말



주한 유럽연합 대사
우고 아스투토

한-EU 무역 관계는 1,240억 유로 이상의 상품 무역, 330억 유로 규모의 서비스 무역, 그리고 950억 유로 규모의 상호 외국인 직접투자(FDI) 잔액을 기록하며 매우 견고합니다.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확실성, 안정적인 무역, 예측 가능한 동맹, 그리고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규범들이 갈등과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해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신뢰와 공동의 목표 의식, 그리고 전략적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은 서로에게 이로운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협력과 상호 이해, 그리고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한-EU 관계의 근간에서 진정한 회복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양국 간 무역과 투자는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치들은 대륙을 넘어 사람과 기업, 지역사회가 연결되어 공동의 기회를 창출해온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한-EU FTA는 장벽을 철폐하고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며, 양측 시장에서 기업들이 자신 있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 이러한 성장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서비스, 녹색 기술, 연구 주도 산업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의 투자와 협력을 촉진하며, 무역협정이 회복력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U와 한국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혁신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번영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무역은 강물처럼 대륙을 넘어 사람과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혁신은 거리를 좁혀 전 세계적 도전과제를 공동의 성과로 바꾸어 나갑니다.

또한 우리는 디지털 무역과 연구 분야에서 양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연구,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녹색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공동의 아이디어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과 변화하는 시장 환경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신뢰, 그리고 협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상호 존중과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EU 관계는, 무역과 협력, 그리고 공통의 비전을 통해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만들어 나가는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EU 통상 관계 개관



유럽연합(EU): 세계 경제 재편 속에서의 안정성과 규모

세계 무역이 잇달은 경제적·지정학적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EU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신뢰가능한 존재로 자리매김해 왔다. EU는 전 세계 상품 교역에서 **EU 역외 교역량의 약 6분의 1**을 일관되게 차지하며 단일 시장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를 통합하면, EU는 세계 최대의 교역국 중 하나로 평가된다.

EU가 무역 강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규모에 있지 않고, EU의 **개방성**에 있다. EU의 경제 활동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다. 유럽 기업들은 기계와 의약품, 자동차, 명품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전 세계에 수출하며 세계 공급망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EU는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직접투자국이자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국**으로, 대외적인 자신감과 대내적인 매력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2023년 경기침체 이후, EU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 1.1%였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5년에는 1.5%**로 상승했다. 인플레이션 완화와 임금 상승은 가계 구매력 회복으로 이어지며 견조한 내수 수요가 회복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EU의 경제회복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Fund)과



금융여건 개선 덕분에 투자는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과 2027년에는 성장세가 완만한 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대외적 안정성과 민간 소비 회복세에 달려있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은 생산성과 에너지 분야의 경쟁력, 인구회복력의 구조적인 발전에 더욱 더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의 무역 정책은 정교한 전략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며 야심찬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76개국 이상을 포함하는 44건의 무역협정**을 통해 유럽 기업들은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 확대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호주, 인도, 메르코수르와 체결된 주요 협정들은 상당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무역을 넘어, 이러한 협정들은 공급망 다변화, 핵심 원자재 확보, 그리고 첨단 기술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EU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무역 기준을 형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래지향적인 국제 파트너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쟁적인 글로벌 환경 속에서 혁신이 이끄는 성장

2025년 명목 GDP가 2조 달러에 육박한 한국은 역동적인 수출과 기술이 주도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국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은 경제 규모를 넘어선다. **무역이 GDP의 약 80%를 차지**하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출 지향적인 선진 경제국 가운데 하나이다. 견실한 산업 및 기술이 주도하는 한국 경제는 명목 GDP 기준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사이의 경제순위를 자랑하고 있다.

한국이 체결한 광범위한 무역 협정은 한국의 대외 지향적인 무역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한국은 약 **60개국과 21개의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이는 세계 경제 성장률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한국은 2025년말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했으며,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에 대한 고도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시장 접근성 개선, 투자 채널 강화 및 협력 확대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며 성장률은 **2025년 완만한 1.0%에서 2026년 1.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해 고성능 AI 반도체와 선박에 대한 기록적인 수요에 힘입어 총수출 규모가 역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2026년 초 데이터는 해외 수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초기 상승 효과가 점차 정상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2026-2027년 성장세 지속 여부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과 구조적인 제약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더욱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계속해서 한국 상품 수출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며,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한-EU 무역 및 투자: 무역 협정 그 이상의 의미

2011년 발효된 한-EU FTA는 EU의 가장 중요한 양자 경제 관계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한-EU 상품 무역은 2025년에 1,240억 유로 규모로 회복되었으나 EU는 약 150억 유로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양자 무역 수지는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EU가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및 전자부품을 대량 수입하면서 상품 분야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이 특히 금융, 전문 서비스 및 지식재산 등 서비스 분야에서 일관되게 흑자를 기록하며 이 적자를 일부 상쇄하고 있다. **양자 서비스 교역은 전년동기 대비 4%의 완만한 증가율로 2024년 330억 유로(유럽연합 통계청 최신 데이터)를 기록했다.** EU는 한국과의 서비스 교역에서 오랜 기간 흑자를 유지했으며, 2024년에는 86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다. EU는 2024년에도 **외국인직접투자(FDI) 잔액이 530억 유로(한국 FDI 잔액의 24.4%)로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다.** 이는 일본(18.5%), 미국(16.5%), 동남아(16.2%), 그리고 중국(5.8%) 보다 큰 투자 규모이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배터리와 전기차, 반도체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양자 투자 관계도 심화되었다. 이같은 **전략적 장기 투자**는 단기적인 무역 흐름 보다는 산업적 동조화를 반영한다.

한-EU 파트너십은 탈탄소와 디지털 전환, 그리고 공급망 회복력과 같은 공통의 우선과제에 점차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자 협력은 관세 인하를 넘어 신산업과 규제 표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EU 관계는 분열이라는 서사를 반박한다. 완만한 성장과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EU와 한국 경제는 **개방된 시장, 견고한 제도와 기술이 회복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한-EU FTA는 EU가 처음으로 체결한 “차세대” 무역 협정으로 지금까지도 가장 야심차게 추진된 포괄적인 협정으로 남아있다. 한-EU FTA는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EU-싱가포르 FTA 및 EU-베트남 FTA를 포함해 EU가 향후 체결한 FTA들의 기준이 되었다. 2011년 7월 발효된 이래 한-EU FTA는 양자 무역 증대, 한-EU 기업 경쟁력 강화, 한-EU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의 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 확대 등 인상적인 결과를 창출했다.

사례

덴마크에 본사를 둔 솔트포스 에너지(Saltfoss Energy)는 유럽과 한국 전역의 산업, 연구, 기관, 정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활동한다. 한국에서의 탄탄한 기반은 한-EU FTA를 통해 무역, 투자, 기술 협력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지며, 청정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솔트포스는 한국 경상남도 거제시에 사무소를 두고, 용융염 기술 기반의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개발 중이다. 부유식 터빈 발전소로 설계된 이 원자로는 본질적으로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저탄소이면서 비용 경쟁력 있는 기저 전력을 제공하여 유럽의 혁신 기술이 한국의 첨단 산업 생태계와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솔트포스는 삼성중공업(SHI)과 한국수력원자력(KHNP)이라는 한국의 대표 기업 두 곳과 전략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SHI의 첨단 조선소에서 부유식 발전소를 제작하고 KHNP와 협력해 이를 운용한다. 한-EU FTA가 만든 안정적인 투자 환경 덕분에 이번 협력은 한국이 솔트포스 사업에서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드러내며, 국제적 파트너십이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우리의 또 다른 고향이며, 한-EU FTA는 양 지역에서 필요한 중요한 투자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럽과 한국은 4세대 원자력 개발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입니다.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개별적으로 할 때보다 훨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더 큰 성과를 함께 달성할 수 있습니다.”

- 클라우스 뉘엔가드(Klaus Nyengaard), 솔트포스 에너지 CEO

1) 출처 : 유럽연합 통계청

또 다른 예로, 한국 소비자들이 유럽 와인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1년 한-EU FTA 발효 당시, 와인에 적용되던 15% 관세가 철폐되면서 시장 접근성과 가격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논의가 이러한 관세 철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르 셀리에(Le Cellier)는 한국 고객 저변을 확대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한국 내 유럽 와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르 셀리에에는 주로 가족 경영 와이너리 및 소규모 생산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프랑스, 이탈리아 및 기타 유럽 지역의 프리미엄 와인과 증류주를 공급하는 신뢰받는 수입-유통업체로 성장했다.



“한-EU FTA는 한국의 고급 와인 애호가들에게 유럽의 독특한 품미와 전통을 소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 김은정, 르 셀리에 대표

FTA가 제공하는 규제의 명확성과 강력한 법적 보호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 덕분에 이케아(IKEA) 같은 유럽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오늘날, 이케아 코리아는 6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와 물류 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3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기흥점의 자동화와 포장 및 배송 효율성, 지속가능성 및 업무 환경 개선에 최근 투자한 1천만 유로가 포함되어 있다.



“한-EU FTA는 이케아에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여, 장기 투자를 촉진하고, 유럽의 리테일 전문성과 스칸디나비아식 기능주의 모더니즘 요소를 한국에 소개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 이자벨 푸치(Isabel Puig), 이케아 코리아 대표이사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양자 상품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며 2011년과 2025년 사이 5.3%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5년 양자 상품 무역은 전년 대비 0.4% 하락한 1,240억 유로를 기록했다. 같은 해 EU의 對한국 수입은 695억 유로(전년 대비 +1.3%), 對한국 수출은 545억 유로(전년 대비 -2.4%)로 집계되었다.

2025년 한국은 EU의 8대 수입국(EU 전체 수입의 2.8%, 일본 보다 높은 순위)이었으며, 8대 수출국(EU 전체 수출의 2.1%)이었다. 같은 해, EU는 한국의 3대 수입시장(한국 전체 수입의 10.6%)이자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3대 수출시장(한국 전체 수출의 9.9%)이었다.

EU의 對한국 무역 적자는 2025년에 150억 유로를 기록했다.

2025 EU 27개 회원국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상품 무역 규모

(단위: 1백만 유로)

교역 대상국	EU와의 총 교역 규모			EU 수출			EU 수입			EU 무역 수지
	순위	규모 (백만 유로)	비중 (%)	순위	규모 (백만 유로)	비중 (%)	순위	규모 (백만 유로)	비중 (%)	규모 (백만 유로)
EU 27개 회원국 외		5,156,559			2,645,022			2,511,538		133,484
미국	1	908,338	17.6%	1	553,985	20.9%	2	354,354	14.1%	199,631
중국 (홍콩 제외)	2	758,354	14.7%	4	199,541	7.5%	1	558,813	22.2%	-359,273
영국	3	504,356	9.8%	2	345,829	13.1%	3	158,527	6.3%	187,301
스위스	4	362,627	7.0%	3	219,446	8.3%	4	143,181	5.7%	76,265
튀르키예	5	217,736	4.2%	5	114,444	4.3%	5	103,293	4.1%	11,151
노르웨이	6	161,183	3.1%	6	65,834	2.5%	6	95,348	3.8%	-29,514
일본	7	129,113	2.5%	7	65,729	2.5%	10	63,384	2.5%	2,345
한국	8	124,009	2.4%	8	54,525	2.1%	8	69,483	2.8%	-14,958
인도	9	118,416	2.3%	11	48,902	1.8%	7	69,514	2.8%	-20,612
브라질	10	87,058	1.7%	14	42,728	1.6%	12	44,330	1.8%	-1,603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2025 한국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상품 무역 규모

(단위: 1백만 달러)

순위	교역 대상국	백만 달러	비중 (%)	한국 수입	백만 달러	비중 (%)	한국 수출	백만 달러	비중 (%)
	전 세계	1,341,225	100	전 세계	631,895	100	전 세계	709,330	100
1	중국	272,732	20.3	중국	141,951	22.5	중국	130,781	18.4
2	미국	196,217	14.6	미국	73,366	11.6	미국	122,851	17.3
3	EU	136,889	10.2	EU	66,759	10.6	EU	70,130	9.9
4	베트남	94,549	7	일본	48,909	7.7	베트남	62,775	8.8
5	일본	77,217	5.8	대만	32,324	5.1	대만	49,070	6.9
6	대만	81,394	6.1	호주	32,091	5.1	홍콩	34,832	4.9
7	호주	46,265	3.4	베트남	31,774	5	일본	28,308	4
8	홍콩	38,854	2.9	사우디 아라비아	27,432	4.3	싱가포르	19,553	2.8
9	사우디 아라비아	32,292	2.4	말레이시아	15,513	2.5	인도	19,231	2.7
10	싱가포르	30,928	2.3	아랍에미리트	14,117	2.2	호주	14,174	2

출처: 한국무역협회

2011-2025 EU 對한국 상품 무역

(단위: 1백만 유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EU의 對한국 수입														
33,095	33,310	31,620	33,114	35,576	34,648	44,036	46,056	47,448	44,218	55,485	72,284	73,465	68,612	69,483
EU의 對한국 수출														
29,684	32,300	34,334	38,127	41,383	38,801	43,509	43,750	43,369	45,310	51,833	60,139	57,465	55,860	54,525
EU의 對한국 무역 수지														
-3,411	-1,010	2,714	5,013	5,807	4,153	-527	-2,306	-4,079	1,092	-3,651	-12,145	-16,000	-12,752	-14,958
EU-한국 전체 무역														
62,779	65,610	65,954	71,241	76,960	73,449	87,545	89,806	90,817	89,528	107,318	132,423	130,930	124,472	124,009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EU와 한국간 양자 무역은 기계장비(31.9%)와 운송장비(21.8%), 그리고 화학(16.2%)을 비롯해 2025년 전체 양자 상품 무역의 96%를 차지한 산업 분야에 여전히 고도로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농산물 제품에 대한 양자 교역도 점진적으로 증대되어 2025년엔 전체 양자 무역의 3.9%를 차지했다. 같은 해, EU의 對한국 농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나, 수산물과 공산품 수출은 각각 4.8%와 2.7% 감소했다. EU의 對한국 전체 수출 가운데, 농산물 제품 비중은 2014년 5.2%에서 2024년 7.6%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소폭 증가해 8.0%를 기록했다.



2024-2025 한-EU 품목별 상품 무역

(단위: 1백만 유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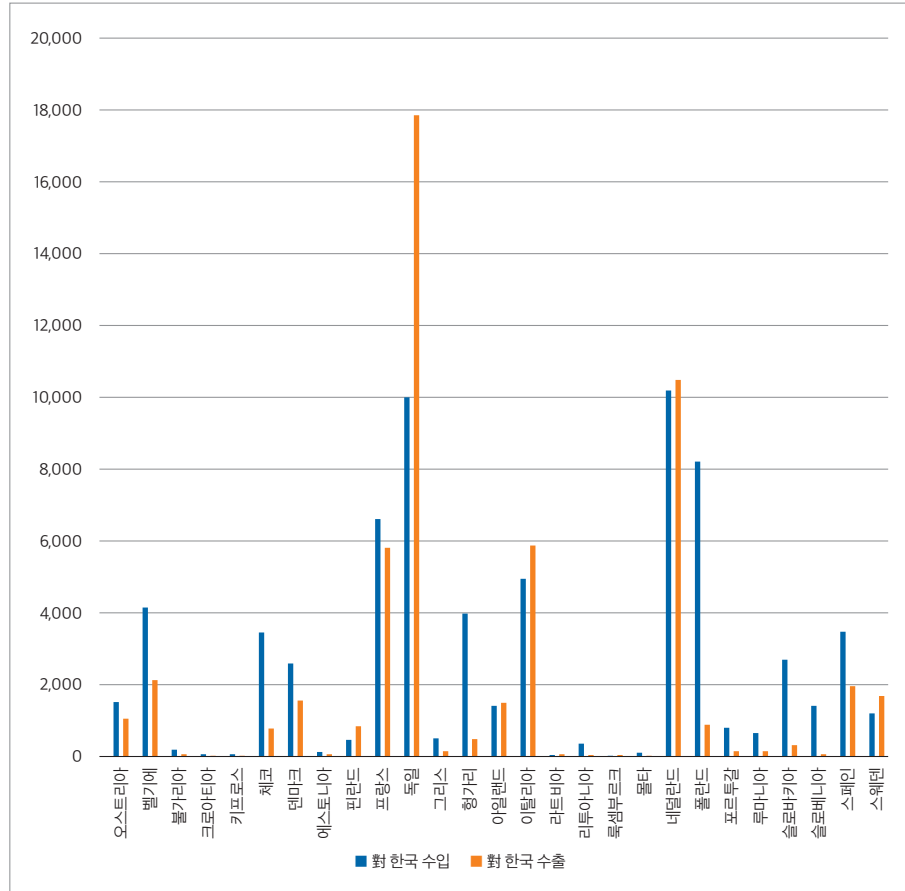
품목	EU 수입			EU 수출			EU 무역수지	
	2024	2025	24/25	2024	2025	24/25	2024	2025
전체 상품	68,612	69,483	1.3%	55,860	54,525	-2.4%	-12,752	-14,958
농산물 제품 (WTO 유류과이라운드 농업협정 정외의 따름)	451	480	6.5%	4,262	4,335	1.7%	3,811	3,855
비농산물 제품	68,161	69,003	1.2%	51,599	50,190	-2.7%	-16,563	-18,813
수산물	133	151	13.7%	104	99	-4.8%	-30	-53
공산품	68,028	68,852	1.2%	51,495	50,092	-2.7%	-16,533	-18,760
HS 분류								
I 산 동물: 동물 제품	113	135	19.8%	1,622	1,765	8.8%	1,510	1,630
II 채소 제품	32	29	-10.9%	493	431	-12.6%	461	402
III 동식물성 유지	3	18	459.0%	310	393	26.9%	306	374
IV 식품, 음료, 담배	435	447	2.8%	1,762	1,665	-5.5%	1,328	1,218
V 광물성 제품	1,102	1,183	7.4%	745	276	-63.0%	-357	-907
VI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 제품	11,874	11,646	-1.9%	8,919	8,411	-5.7%	-2,955	-3,235
VII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 제품	5,830	5,762	-1.2%	1,663	1,642	-1.3%	-4,167	-4,120
VIII 원피, 가죽, 마구	64	63	-0.6%	1,581	1,488	-5.9%	1,517	1,425
IX 목재, 목탄, 코르크 및 관련 제품	4	6	46.0%	307	270	-12.2%	303	264
X 펄프, 종이 및 판지	168	166	-0.8%	313	285	-9.0%	145	118
XI 직물 및 기타 섬유 제품	888	797	-10.3%	1,772	1,508	-14.9%	884	711
XII 신발, 모자 및 기타 모자류	41	34	-16.8%	385	339	-12.1%	344	304
XIII 석제품, 유리 및 세라믹 제품	242	215	-11.2%	517	489	-5.5%	275	274
XIV 진주, 귀금속 및 관련 제품	245	303	23.9%	754	956	26.9%	509	653
XV 비금속 및 관련 제품	5,712	5,396	-5.5%	2,073	1,934	-6.7%	-3,639	-3,462
XVI 기계장비	21,289	20,665	-2.9%	17,536	18,925	7.9%	-3,752	-1,740
XVII 운송장비	17,138	18,507	8.0%	10,032	8,520	-15.1%	-7,106	-9,987
XVIII 광학 및 사진 기기 등	1,723	1,753	1.7%	3,780	3,703	-2.0%	2,056	1,950
XIX 무기 및 탄약	1,186	1,821	53.6%	13	16	27.4%	-1,173	-1,805
XX 기타 제조 제품	206	203	-1.4%	522	494	-5.2%	316	291
XXI 예술품 및 골동품	27	35	32.8%	60	38	-37.2%	33	2
기타	293	299	2.4%	702	979	39.4%	409	679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2025년,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독일이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였으며, 한-독 무역은 EU 27개 회원국의 對한국 전체 교역의 22.4%를 차지했다. 네덜란드 (16.7%)와 프랑스(10.0%), 이탈리아(8.7%), 폴란드(7.3%), 벨기에(5.1%) 및 스페인(4.4%)이 그 뒤를 따랐다.

한-EU 27개 회원국별 한국과의 상품 양자 무역

(단위: 1백만 유로)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한-EU 서비스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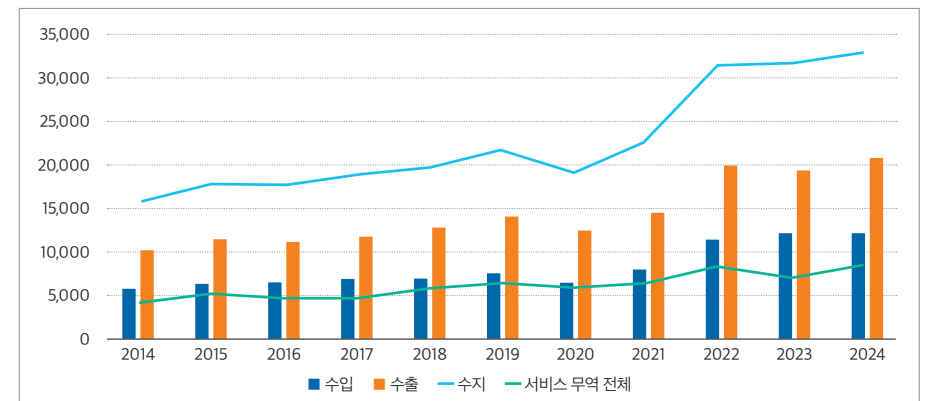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서비스 분야는 전 세계 경제 분야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는 EU GDP와 고용의 약 4분의 3을 책임지며, 그 어떤 분야보다도 EU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U는 서비스 교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2024년(유럽연합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최신 자료 기준), 역외 지역과의 EU 서비스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2조 9,420억 유로를 기록했다.

한-EU FTA는 서비스 교역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양자간 상품 무역 성장은 전문적인 국경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와 서비스 교역 확대로 이어졌다. 양자간 서비스 수출에서 목격되고 있는 견실한 성장은 서비스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문화가 규모의 경제와 혁신을 통해 양측 모두의 경제적 이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한-EU 서비스 교역은 전년 대비 완만하게 4% 증가해 329억 유로를 기록했다.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 이후, EU의 대한국 서비스 수출은 205.2% 증가했으며, EU의 대한국 수입 또한 203.3% 증가했다. 한-EU FTA 발효 이후, EU의 서비스 수출과 수입 모두 9%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4년, EU 서비스 수출은 전년 대비 7% 늘어난 반면, 수입은 1% 소폭 하락했다. 지난 10여 년간, EU는 한국을 상대로 일관되게 서비스 분야에서 무역 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2024년에는 그 규모가 86억 유로에 달했다.

2014-2024 한-EU 서비스 무역 규모

(단위: 1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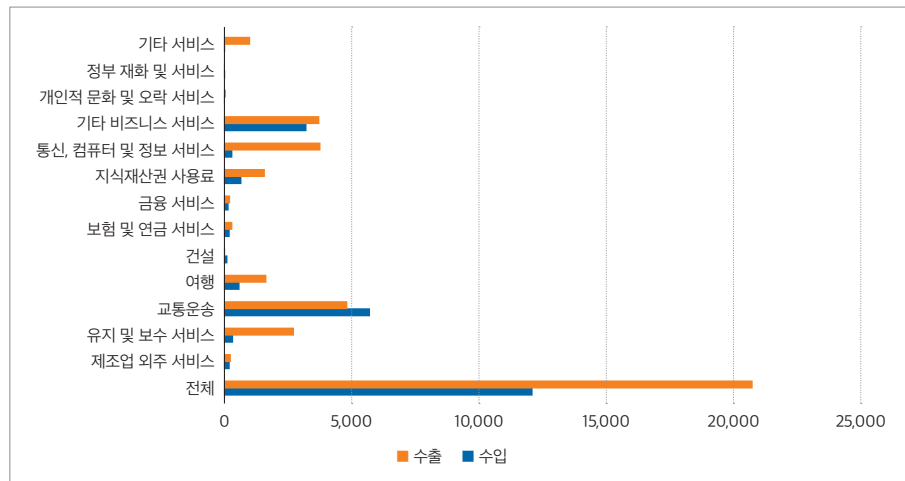
연도	1백만 유로				전년 대비 성장률(%)			
	수입	수출	수지	전체	수입	수출	수지	전체
2011	4,013	6,804	2,791	10,818	-9%	4%	30%	-1%
2012	4,009	7,552	3,543	11,562	0%	11%	27%	7%
2013	4,970	8,868	3,898	13,838	24%	18%	11%	20%
2014	5,786	10,201	4,415	15,987	16%	15%	13%	16%
2015	6,328	11,533	5,205	17,861	9%	13%	18%	12%
2016	6,511	11,254	4,743	17,765	3%	-2%	-9%	-1%
2017	7,016	11,871	4,855	18,886	8%	5%	2%	6%
2018	6,990	12,885	5,895	19,875	0%	9%	21%	5%
2019	7,644	14,084	6,440	21,727	9%	9%	9%	9%
2020	6,537	12,529	5,992	19,067	-14%	-11%	-7%	-12%
2021	8,063	14,563	6,499	22,626	23%	16%	8%	19%
2022	11,462	19,918	8,456	31,380	42%	37%	30%	39%
2023	12,273	19,403	7,130	31,676	7%	-3%	-16%	1%
2024	12,172	20,769	8,597	32,941	-1%	7%	21%	4%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2024년, 한-EU 서비스 무역은 **교통운송(32.2%)**, **통신·컴퓨터 및 정보서비스(12.7%)**, **유지 및 보수 서비스(9.6%)**, 그리고 **지식재산권 사용료(7.1%)**와 같은 몇 개 분야에 집중되어 이뤄졌다.

2024 분야별 한-EU 서비스 무역

(단위: 1백만 유로)



2022-2024 분야별 한-EU 서비스 무역

(단위: 1백만 유로)

서비스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수입			수출			수지		
총액	11,462	12,273	12,172	19,918	19,403	20,769	8,456	7,130	8,597
제조업 외주 서비스	231	283	247	292	262	328	61	-21	81
유지 및 보수 서비스	359	402	394	2,137	2,463	2,770	1,778	2,061	2,376
교통운송	6,039	5,842	5,746	6,828	4,463	4,862	790	-1,378	-884
여행	256	556	670	855	1,518	1,687	599	962	1,017
건설	161	90	154	41	46	44	-119	-44	-111
보험 및 연금 서비스	259	426	315	167	175	354	-92	-251	39
금융 서비스	175	131	228	241	265	301	66	134	73
지식재산권 사용료	628	730	678	2,066	1,947	1,658	1,438	1,217	981
통신,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293	347	393	3,043	3,266	3,807	2,750	2,920	3,414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2,979	3,374	3,260	3,223	3,750	3,758	244	376	497
개인적 문화 및 오락 서비스	63	73	65	332	139	99	269	66	34
정부 재화 및 서비스	15	17	21	26	28	27	11	11	6
기타 서비스	5	5	3	666	1,082	1,076	661	1,077	1,073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2024년 EU 회원국 가운데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최대 교역 파트너는 독일로, 전체 한-EU 서비스 무역에서 26.3%를 차지했다(EU 對한국 전체 수출의 19.3%, EU 對한국 전체 수입의 38.2%에 해당). 아일랜드(EU 전체 수출의 21.6%, 전체 수입의 3.1%에 해당), 네덜란드(EU 전체 수출의 17.5%, 전체 수입의 7.2%에 해당), 프랑스(EU 전체 수출의 11.1%, 전체 수입의 9.0%에 해당), 그리고 덴마크(EU 전체 수출의 7.2%, 전체 수입의 4.2%에 해당)가 그 뒤를 이었다.



2022-2024 EU 회원국별 한국과의 서비스 무역

(단위: 1백만 유로)²⁾

서비스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수입			수출		
EU 27개 회원국 전체	11,462	12,273	12,172	19,918	19,403	20,769
오스트리아	121	132	217	185	233	233
벨기에	607	452	331	371	389	277
불가리아	3	4	4	11	10	7
크로아티아	4	3	5	15	20	17
키프로스	6	8	16	6	8	12
체코	556	760	911	76	146	166
독일	4,707	4,947	4,644	4,463	4,059	4,006
덴마크	550	483	512	2,250	1,144	1,505
에스토니아	17	13	15	13	34	20
그리스	67	61	60	501	376	340
스페인	116	83	298	457	549	663
핀란드			98			706
프랑스	1,050	1,223	1,099	2,760	2,257	2,302
헝가리	414	465	499	170	173	138
아일랜드	364	381	377	3,316	4,110	4,487
이탈리아	293	531	469	366	397	528
리투아니아	6	5	5	7	11	19
룩셈부르크	40	34	51	234	155	211
라트비아	11	17	13	3	2	7
몰타			46			20
네덜란드	722	848	871	2,790	3,330	3,639
폴란드	500	432	433	443	543	548
포르투갈	192	139	131	47	87	117
루마니아	22	30	31	39	33	46
스웨덴	428	396	359	614	531	635
슬로베니아	10	20	53	76	96	91
슬로바키아	558	613	624	31	32	29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2)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기밀조항으로 인해 회원국별 총 무역규모와 EU 총규모가 동일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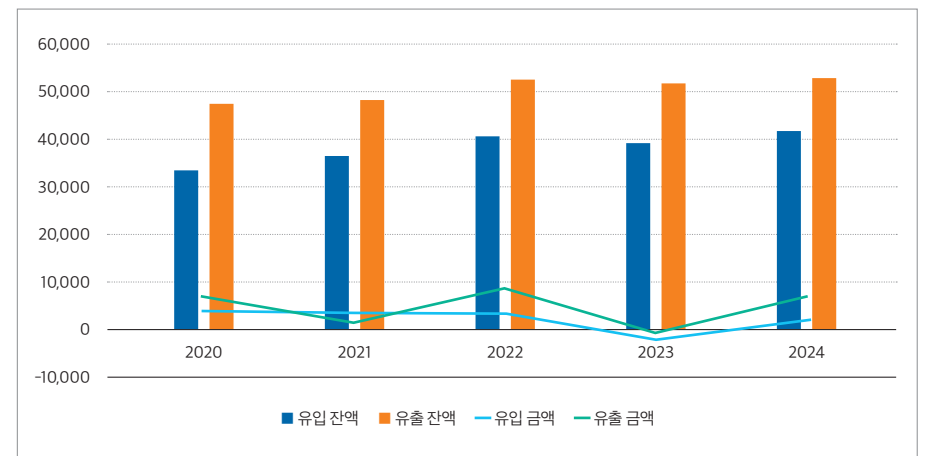
03 한-EU 외국인직접투자(FDI)

EU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총잔액 기준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EU는 한국 FDI 전체 잔액의 24.4%를 차지하며, 일본(18.5%)과 미국(16.5%), 동남아(16.2%)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참고로 중국의 FDI 잔액은 5.8% 기록)³⁾.

2024년(유럽연합 통계청 최신 자료 기준), EU의 對한국 FDI 잔액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530억 유로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對EU FDI 잔액도 전년 대비 6% 증가해 418억 유로로 집계되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對EU FDI 금액 추이는 일관성을 보인 반면, EU의 對한국 FDI 금액 추이에는 변동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2020-2024 EU의 對한국 FDI 잔액 및 FDI 금액 추이

(단위: 1백만 유로)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3) 출처: 한국은행 (2026년 3월 기준)

2024년, EU 회원국 가운데 네덜란드가 EU의 對한국 FDI 총잔액의 38.6%를 차지하며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독일(17.8%)과 룩셈부르크(10.3%), 그리고 프랑스(9.7%)가 그 뒤를 이었다. 네덜란드로부터의 대규모 FDI 유입은 기업에 유리한 네덜란드 세제 때문에 네덜란드 법인을 통해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데 기인한다.

같은 해, 독일은 한국의 對EU FDI 순위에서 1위(전체 FDI 잔액의 17.7%)를 차지했으며, 이어 헝가리(15.9%), 폴란드(15.4%), 네덜란드(11.8%), 그리고 슬로바키아(10.3%) 순이었다. 한국의 전기차 분야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다.



2022-2024 EU 회원국별 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1백만 유로)

	2022				2023				2024			
	유입 금액	유출 금액	유입 잔액	유출 잔액	유입 금액	유출 금액	유입 잔액	유출 잔액	유입 금액	유출 금액	유입 잔액	유출 잔액
EU 27개 회원국	3412.8	5412.3	40837.7	52609.9	-1893	1274.9	39411.7	52016	2326.8	4600.2	41779.2	53026.3
오스트리아	-	-	-	-	-	-	-	-	-	-	-	-
벨기에	-188	234	1293	952	569	-46	1914	721	-238	21	1718	711
불가리아	-16.3	0.2	59.7	3.3	0.2	1.3	58.6	4.4	0.6	0.1	58.2	4.3
크로아티아	-0.2	0	0	0	0	0	0	0	0.7	0	12	0
키프로스	4.3	0.8	16.5	-	3.4	-	16.3	-	-	0	27.3	-
체코	577.8	-	4793.7	0	184.1	0	-	0	-	-	-	0
덴마크	1.5	132.9	33.1	796.6	-9	-202.1	18	552.7	-	329.7	20.1	793
에스토니아	0.1	-	0.8	-	-0.3	-	1	-	-0.3	-	0.5	0.1
독일	-112	1494	7081	10472	-727	193	6427	9475	118	375	7400	9463
핀란드	-11	15	-2	121	-11	67	-13	255	10	-51	-3	211
프랑스	-648	88	887	5251	188	471	1065	5448	71	101	1123	5153
그리스	1.3	1.3	28	0.2	0.3	0.4	28.5	0.1	8.7	8.8	28.9	-0.3
헝가리	1870.7	-	6420.3	1758.3	-1052.4	136.6	5654.4	1845.8	1418.5	-170.5	6636.7	1638.5
아일랜드	-36.1	-192.8	298.8	1014.3	42.7	744.3	471	1901.6	-16.2	44.8	153.2	1881.9
이탈리아	276	390	675.2	2128.3	-84.8	263.5	601.6	2323	157	-49	849.5	2118.8
라트비아	5	-	6	0	2	0	9	0	-	0	7	0
리투아니아	5.1	-	-	-	-0.4	-	-	-	-0.4	-	3.1	-
룩셈부르크	142	480	1693	4830	365	550	1924	5609	-32	1334	1914	5458
몰타	-	-	-	-	-	-	-	-	-	-	-	-
네덜란드	-539	2283	5596	19227	-687	20	5037	18889	-174	2250	4920	20494
폴란드	1907.4	-4.4	5894.4	-20.9	-23.9	-5.7	6313	-27.6	107	14	6414.7	-13.7
포르투갈	-43.2	-7.8	237.2	-8.2	84	4.8	318.1	-3.6	14.2	-8.5	332.6	-0.1
루마니아	-1.2	-	57.2	0	-1	-	-	-	13.1	0	50.9	-
슬로바키아	485.6	-	4124.8	-	-556	-	3521.3	-	855.3	-	4303.7	-1.8
슬로베니아	4.3	3	6.4	12.5	5.6	-2.1	13.4	10.3	3.6	-1.3	20.1	8.6
스페인	23	68	1229	1619	103	9	1274	1705	-58	184	1319	1796
스웨덴	-	-	-	2590.6	-	-1059.5	-	1336.5	-	-	-	1340.5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